

IDENTITY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Major_Design Management Name_Lee Ji#Yoon

들어가기에 앞서

9박 10일간의 베를린 여행은 3가지 면에서 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해외 워크샵 이전의 국내 워크샵 과정을 통해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인과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둘째로 2D디자인계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디자이너들과의 친분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평소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에 대한 의미가 각별했는데,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나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 해 주는 것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고, 그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기 좋은 방법은 그것과 멀리 떨어져 다른 것들과 함께 그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의 관심분야는 크게는 정체성에 관련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고, 좁게는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브랜딩과 아이덴티티 및 한글 타이포그래피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 때부터 줄곧 관심 가져왔던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역시 졸업반 때부터 흥미를 느끼고 잠깐이나마 직업으로서도 경험 해 보았던 브랜딩, 이 두 분야에서 선진화 되어 있는 독일업체 탐방은 내게 정말 필요한 좋은 기회였다. 손에 잡히지도, 눈에 또렷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저 선망해 오고 부러워했던 몇몇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개인 디자이너와 기업

들을 접하고 그들의 성공요인을 가까이서 예측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내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들의 치열한 노력에 대해 감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베를린 워크샵을 토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지금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분야와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생각들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목 차

1. 내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과 좋은 디자이너에 관하여 (in English)
2. 한글에 대하여
3. 브랜드에 대하여
4.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
1. 내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과 좋은 디자이너에 관하여 (in English)

I know that there are various particular fields in design, and each of them needs special abilities. For example, editing designer should have a sense of layout, in other words, the ability to understand many objects quickly, arrange them, and show them sensuously. For web designer a sense of trend is important and branding designer needs a keen insight to synthesize, analyze, categorize and then draw the essential concept as fast as possible.

But the basic is same whether the field is web design or other fields. The main point is harmonious communication ability. So I think that we need to endeavor to earn dynamic communication.

Always maintain fresh mood.

Forget yesterday.

So, imagine as various things as possible in a limited time.

Next, as we are designer,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e should finalize our work as visual result which can be understood easily by the public. In this process, the thing that you have to pay attention is design includes both art and industry. That's why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is important. Designers should always open their mind. Of course, differences design styles exist. There may some designers who are talented at artistic works, and others may be good at popular designs. We can consider both of them are good. If you are not prepared to accept other people's idea, you can't be a good designer.

Always open your mind.

Be a good watcher & imaginator

So, find the best way to solve and prevent the problem.

2. 한글에 대하여

독일에서 만난 세계 타이포그래피계의 거장 볼프강 바인가르트의 강의는 거장이 왜 거장일 수 밖에 없는가를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 독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수학적, 과학적 원리에 입각한 미적 감각, 거기에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작업에 대해 철저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다. 다시 돌아와 틈틈이 한글창제의 원리와 역사적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찾고 짧게나마 정리를 해 보았다.

- 서문 -

사람들은 왜 영어를 선호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영어의 '모호함'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쓰는 단어가 적절할까?' 하는 고민을 영어는 잠재워 준다. 또 영어는 나를 cool하고 trendy하고 luxury하게 보이게 해 준다고들 믿는다. 하지만 그러한 안개 같은 이미지는 끝까지 부정확하게 남을 뿐이다. 한국 사람끼리는 한글로 이야기 할 때 가장 확실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 내에서의 의사소통에서는 한글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글은 한국사람들만큼 개성 있고 즐겁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 본문 -

모국을 사랑하는 한국인들 모두 '한글은 우수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뭐가 어떻게 우수하고 아름다운지를 말하라고 하면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한다.

무엇이 한글을 외국어(특히 알파벳 언어와 한자)와 비교해서 우수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우선 한글중심의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예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자어와 고유어 두 종류의 문법 용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치른 결과 한자어의 정답률은 9%인데 반해 한글식 용어는 37%의 정답률을 보였다. 한자는 구조가 복잡하고 글자수가 많으며 의미파악이 곤란하다. 한자의 획은 20-30이 보통이요 64획짜리도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다. 또한 글자의 수도 국어음절 3000 안팎에 비하면 [집운]에 53525자, [대한한사전]에 41388자이니 실로 놀라운 양으로 한자의 치명적인 단점이다. 한자는 획수가 복잡하고 자체가 비슷한 것이 많아서 시력을 해친다고 한다. 그에 비해 한글은 40개의 음운(자음 19개, 모음 21개)으로 발음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고 그 구조가 간결하며 과학적인 규칙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이는 음절의 공통성이 많은데 비해 한자의 획수는 최대 94획에 이르고 보통은 20-30획의 경우가 많으며 한 획의 길고 짧음이나 한 획의 가감에 따라 각기 다른 음과 훈을 갖는다. 그러므로 시각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력을 해칠 수도 있다. 또한 한글의 경우 타자기, 텔레타이프라이터,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에 적합한 글자로 '알파벳보다 문자의 배열이 훨씬 다양하고 컴퓨터 장치도 파격적으로 쉽게 실용화할 수 있어 컴퓨터의 처리에 한글은 가장 이상적인 문자'라고 한다. 한글은 소리글자 곧 알파벳 글자로서 자음 모음 합해 50자 미만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글만 쓴다면 영문 알파벳 글자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있으며 컴퓨터 산업에서 문자 또는 언어 면에서는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은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문자 발달사상 표음문자가 가장 발전된 단계의 문자다.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서도 중국어가 국제어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문자 자체가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뜻글자인 까닭이다. 문자는 이집트의 성각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쐐기문자, 그리고 한자 등의 뜻글자에서 일본어나 만주어와 같은 음절문자로 발달해 왔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음문자이며 가장 논리적인 글자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계근 교수는 수학적 구조, 위치,

크기, 과학적 조직 등의 우수성에 비추어 한글은 컴퓨터 처리에 가장 이상적인 문자라는 것이다.(조선일보 1972.3.15)

한글은 모음 글자와 자음 글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모문자다. 즉, '단어문자 음절문자 자모문자'의 단계를 밟은 문자 발달사로 보아 그 최종단계의 이상적인 문자체계인 것이다. 음절문자나 자모문자처럼 후대에 와서 발달된 문자들은 그 앞 단계의 문자를 기간으로 하여 그것을 변모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한글은 그러한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매우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다. '독창적'이라는 말은 세계의 다른 민족들이 사용해 온 문자들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뜻이다. 한글은 어떤 기존의 문자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원리, 곧 발음기관과 천지인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 일반 문자들은 정확히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글은 세종 25년(1443년) 세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일반 자모문자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탓도 있기는 하나 이처럼 그 글자를 만든 시기와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란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한글이 우수한 글자로 인정받고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는 독창성에 과학적인 점이 보태졌기 때문이다. 한글은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 21세기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이다. 여러 민족이 사용하는 세계의 다른 문자, 예를 들어 알파벳이나 한자 등은 물론 소규모로 사용되는 어떤 문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훈민정음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 들어 지적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몇 개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의 기본이 되는 글자는 'ㄱ, ㄴ, ㄷ, ㄹ, ㅇ' 다섯 개의 초성자와 '·, 一, |' 세 개의 중성자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가획, 병서, 연서, 합용 등의 방법으로 더 많은 글자들을 만들 수 있다.

한글은 낱소리를 조립해 소리마디 글자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리글자 중에서도 낱소리가 하나하나 쉽게 구별되는 글자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 글자 한 소리의 낱소리 글자이다. 엄밀한 원칙에 따라 닿자와 홀자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됨으로써 수없이 많은 한 글자 한 소리의 소리마디 부호를 만들어낸다. 현재 사용 글자소는 모음 10개와 자음 14개로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글자체계이다. 한글이 표기 가능한 소리는 8778개이고 일본 글자가 표기하는 소리는 201개, 중국 글자가 나타낼 수 있는 소리는 427

개이다. 게다가 한글은 소리와 수를 간단하게 늘릴 수 있는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글을 로마자로 바꾸어 적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원인은 한글 낱자로 적을 수 있는 소리 수에 비해서 로마자로 적을 수 있는 소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 있다. 로마자 스물 여섯 글자는 한글보다 두 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스물 넷 자의 표음 능력을 감당할 수 없다. 한글이 가짓수가 많은 한국어 소리에 맞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진 글자인 데 반해서 로마자는 오랜 세월동안 여러 언어를 거쳐 낱소리글자로 변천하는 동안에 특정 언어의 소리체계에 매이지 않고 여러 언어에 공통된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자들만 살아 남았다. 그래서 로마자는 세계의 글자가 되기는 했지만 잠재적인 표음 능력에서는 한글에 미칠 수 없다.

[참조도서]

- 1) 정휘창/ 한국일보/ 1964.2.4 /김문창(1985:21)재인용
- 2) 현대 국어 어문 표기론/ 공주대학교 대학원/ 김혁철/ p45
- 3) 조정현/ 동아일보/ 1977.10.24
- 4) 이계근/ 조선일보/ 1973.3.15
- 5) 현대 국어 어문 표기론/ 공주대학교 대학원/ 김혁철/p49
- 6) 이현복/ 21세기 지구촌을 한글 문화권으로- 한글은 국보 제 1호이며 인류문화의 유산이다/ 한글 새소식 324호/ 한글학회/ p9-10
- 7) 국어정책 자료집/ 문화관광부/ 2002.4
- 8) 국어 지식 영역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미영/ p121-125
- 9) 한글 디자인/ 한재준, 안상수/ 안그래픽스/ p 31

3. 브랜드에 대하여

절반의 감동과 절반의 실망감을 가지고 짧은 두 개의 프리젠테이션을 한 시간에 걸쳐 경험했다. 사실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에 감히 이 단어를 써도 될까 싶지만, 프로젝트 발표에

서 느낀 나의 솔직한 느낌은 절반의 감동과 절반의 실망이었다. 감동은 당연히 다양하고 규모 있는 리서치 조사와 그것에 타당하면서도 세련미를 가진 이미지로 구현한 후, 최적의 규정들을 만들어 실용성을 높이는 합리성과 오랜 기간 속의 그들만의 노하우에서 느낄 수 있었고, 실망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철학은 없는 그들의 지극히 상업적인 마인드가 안타까웠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상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디자인 분야에서 상업적 디자인에 실망하였다니, 어리석은 말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디자인 분야가 지금보다 더 알맞은 자리로 이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랜은 지금까지 그랬듯 상업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업경영자들이 만들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생각이 주를 이루는 세상이 인류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본질과 비전의 문제 -

정체성 찾기는 4나는 누구인가 로 시작해 4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나의 본질을 찾아내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인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다른 어떤 분야의 디자인보다도 인간과 가장 밀접하다. 아이덴티티는 철학을 반영하고, 철학은 기업의 태도와 인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표면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면의 한결같음이 그보다 더 크고 깊은 감동을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차오르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쉽사리 태도가 돌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를 느끼기 전에 충분히 머리를 아프게 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반드시 정석을 익힌 후에야 가능한, 자유로운 응용이기 때문이다.

4.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월사의 프리젠테이션은 이번 워크샵에 있어서 가장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나의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인 반감을 느껴야 했다. 물론 그들의 제품은 작품 수준으로 훌륭하다. 월사의 제품이 내가 사는 도시에 설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척 기뻐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이 공공생활이 이전보다 더욱 편리함을, 그들의 도시가 한층 세련되어졌음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수익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은 광고수입이다. 그들의 제품 속에 더 많은 광고공간이 들어갈수록, 회사는 더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현재의 세상은 너무나 많은 광고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글로벌 규모의 기관에서 조사한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상업화의 정도가 심히 광고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일수록, 인간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물질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진다. 월사의 직원들은 그들의 광고수 만큼 행복해 질 수 있겠지만, 그 광고를 볼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보다 더 가치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공공디자인의 의미 -

눈에 익은 사물, 풍경일수록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어렵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한발자국 물러서서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눈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큰 용기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성껏 재 탄생시켜도 생활과 밀접한 것의 디자인을 바꾼 대가로 감동과 칭찬과 함께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첫 시선이 끊지 않고 귀가 가려워도 공공성일 땐 디자인은 재미와 의미가 있고 명예롭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이너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마 무 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만 26년을 한 나라에서 살아오고 있다. 두세 번의 짧은 해외여행 경험만을 가진 나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다. 어렵겠이냐마,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느낀 것은, 밖에 있을 때 가장 나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더라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아직 나 자신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헤안이 있는 사람은, 평생 한 자리에 있는다 해도 모든 진리를 다 깨달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참 아리송하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단어이다. 디자인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 정의들은 각자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문장 속에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아주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장 속의 하나하나의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모두 의미하는 바가 틀리다. 단어를 규정짓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수많은 디자인의 정의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 중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고 다시 한번 정의 내리고 싶다. 아직은 아는 것이 너무 없어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학원생이라는 소중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작지만 확고한 나만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베를린 디자인 워크샵은 이런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다. 미래를 위한 정부에서의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다.